

광주-佛루앙 작가 ‘명품 판화’의 세계로

한·프랑스 교류 11주년 ‘COREELATION 4’展

지호겔러리·무등겔러리 45명작가 단체전
전남대·목담미술관·한국미용박물관 연계

광주와 프랑스 판화 작가들이 명품 판화를 선보이는 전시가 올해도 열린다. 점점 디지털화되는 판화를 속 오리지널 판화의 우수성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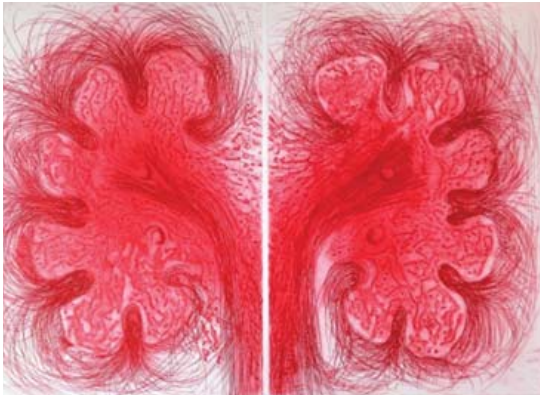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는 한국-프랑스 교류 11주년을 맞아 ‘코레라송(COREELATION) 4’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전은 2007년 프랑스의 샌-마리팀도와 광주의 판화예술인들이 맺은 인연으로부터 시작한다. 국제 판화예술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샌-마리팀도는 프랑스의 문화예술수도로 불리는 도시다. 이에 한국의 문화수도 광주와 연결고리가 됐다. ‘코레라송’은 샌-마리팀도청의 지원을 받아 결성됐으며, 2007년 당시 프랑스에서 첫 번째 교류전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루앙 작가들과 광주 작가들이 참여하는 올해의 전시는 크게 2개의 단체전과 3개의 연계전시(개인전)로 나뉜다.

먼저 오는 25일까지 ACC 아시아장작스튜디오 내 지호겔러리에서 열리는 단체전은 도미니크 알리아디에흐, 프레드릭 헤고, 무리엘바움가트너, 엔 폴루스 등 프랑스 작가 11명과 강행복, 고파타임, 권경애, 김상연 등 광주 작가 19명이 참여해 총 6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무등겔러리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다이나나 퀸비, 사빈크라우치크, 크리스틴 부비에르, 등 프랑스 작가 10명과 강행복, 김상연, 김익모, 김제민, 노정숙, 장원석씨 등 광주작가 6명이 참여해 총 작품 25점이 출품된다.



무리엘 바움가트너 ‘fleur d'airain’



프레드릭 헤고 ‘la luxure’

아울러 지역 3개 기관 협력으로 연계 전시도 마련된다. 이 전시는 전남대와 목담미술관, 한국미용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남대 용지관에선 오는 25일까지 파스칼 지하르의 ‘유럽전통 오리지널 판화’전이, 목담미술관에선 오는 9월5일까지 ‘모히즈 마일라흐의 판화세계 초대전’이, 한국미용박물관에선 오는 9월 2일까지 쾅 티브흐의 ‘시간의 흔적’이 개최된다.

한편, 전시와 연계한 워크숍도 지난 12일 전남대 용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프랑스의 작가 파스칼 지하르, 쾅 티브흐를 비롯, 광주의 김상연, 장원석 작가가 참여해 발표했다. (문의 010-3929-2557) /정겨울기자 jwinter@kjdaily.com

한지 오려붙여 ‘담양의 색을 담다’

정명숙 작가, 대담미술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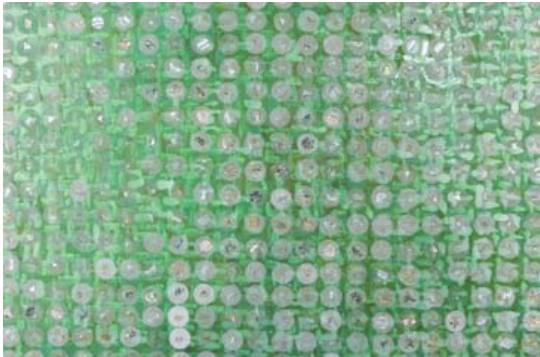
소박한 사람들로 가득한 마을의 풍경, 푸른 자연 등을 한지로 표현해내는 작품들을 만나보자.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는 22일까지 정명숙 작가를 초청, ‘담양의 색을 담다’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연다.

전시는 대담미술관의 올해 공간연계형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담 예술가의 집Ⅲ’ 시리즈의 첫 번째 개인전으로 마련된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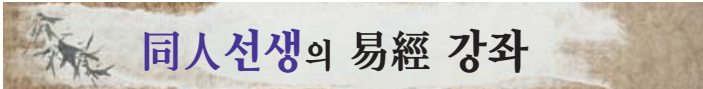
평소 한지를 오려 붙이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정 작가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담양의 특성과 지역성을 함께 작품에 담아냈다.

정 작가의 작품은 부주한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맑고 투명한 마음을 느끼도록 해 준다. 한편, 2018대담미술관 공간연계형 창작활동 지원



정명숙 작 ‘담양의 색을 담다’

프로그램에는 정명숙 작가 외에도 오창록, 유종원, 송환규 작가가 선정됐다. 정 작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회화, 입체,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릴레이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전시 문의 061-381-0082) /정겨울기자 jwinter@kjdaily.com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83〉 육십사괘 해설 :17.택리수(澤雷隨) 下

“수유획(구사), 부우가 길(구오), 구계지 내종유지(상육)”

〈隨有獲, 孚于嘉吉, 拘係之 乃從維之〉

수괘의 구사는 ‘수유획 정흥 유부재도이명하구’(隨有獲 貞凶 有孚 在道以明何咎)다. 즉 ‘따르면 얻음이 있으나 이는 바르더라도 흉하다. 믿음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도에 따르면 어찌 허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구사의 자리는 구오 군(君)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재상의 자리로 민중은 직접 구오의 군에 따르는 것보다는 구사의 재상 밑으로 모여든다.

이때 구사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규합해 사당(私黨)을 만들거나 들어오는 모든 재물들에 대한 이득을 혼자 취하면 구오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비록 구사가 바르더라도 흉하다고 해서 정흥(貞凶)이라 했다. 그러나 구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공명정대하고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면 허물이 없으니 구사는 구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군에 성의를 다하는 것을 자신의 도리(道理)로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민심과 재물을 구오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구사를 얻으면 구하지 않아도 다 른데서 여러 가지로 모여드는 기운이 강 한 때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에서 먼저 다가오고 손을 댈다. 이러한 때에 본인이 사심(私心)을 갖거나 사당(私黨)을 만들어 명약관화하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부터 의심을 사게 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반면 공평한 도리에 의해 타당성 있게 추진하는 일은 반드시 희망한 대로 이뤄진다.

운기나 계획한 일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이나 권유를 받아 추진하게 되나 이는 상사 등 원사람으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게 되니 주변과의 절충을 한다거나 하는 등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취직이나 전업 등은 이뤄지나 올바른 방식이 아니면 후일의 화근(禍根)을 만들게 되니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 혼인 등은 언니, 오빠, 친구를 위해 대신 불려나가는 일이 있고 혼담은 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잉태는 어려움이 있고 의혹이 있어 그 자체가 산모에게 정신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기 힘들고 가출인과 분실물은 오히려 찾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노고가 들어 손해이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병은 부위로 보아 상체 폐, 기관지 등에 피고름이 있거나 객혈, 독이 차 있고 유능한 전문의를 바꿔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낱씨는 천동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온다. [실점에]로 ‘출가녀의 행방 여하’를 점해 ‘수괘(隨卦) 사효동’을 얻고 수지돈(隨之屯)이 되자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수괘(隨卦)는 따르는 것이니 출가녀는 진퇴 장부를 따라 나섰고 태백 소녀가 감수로 변해 물구덩이 속에 빠진 상인이 소녀가 물 속에 빠졌고 남자와 함께 있으니 동반 자살했다.

수지돈(隨之屯 五動)	
택리수	진위뢰

구오의 효사는 ‘부우가 길’(孚于嘉 吉)이다. 즉,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것에 믿음이 있으니 길하다’는 뜻이다. ‘가’(嘉)는 짝, 배우자, 혼례라는 뜻이니 ‘아름다운 배우자를 신뢰하니 경사스러운 일이 다’라는 것이다. ‘부’(孚)는 알걀 부로 새끼를 낳아 기르니 길하고 손톱 조(爪) 밑에 아들 자(子)가 있으니 아들을 낳는다. 또한 잔치에서 벌주를 마시니 길하다고 한다.

구오는 강건중정(剛健中正)의 군위(君位)다. 따라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 길의 도를 얻는다. 점해 구오를 얻으면 신망을 얻을 때로 부하, 손위의 신망을 얻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조건으로 시집가는 때다. 사업, 거래 등에서는 좋은 상대를 만나 의기투합해 이뤄진다. 믿고 맡기면 기쁘고 길한 때이다. 혼인도 길하고 잉태도 구오가 변하면 진위뢰이니 임신의 초기에는 놀랄 일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임신(臨產)에 있어는 곧 분만해 놀란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가출인, 분실물 등은 멀리 가버려 돌아오기 힘들

고 찾기 힘들다. 병점에서는 구오가 동하면 정신불안, 신경과민, 광조(狂躁), 역상(逆上), 뇌병, 정신병 등이고 귀훈괘로서 변괘가 팔순괘가 되니 중병의 경우라면 생명이 위독하다. 낱씨는 뇌성벽력이 치면서 비바람이 분다.

수지무망(隨之无妄 上動)	
택리수	진위무망

수괘의 상육의 효사는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향우서산’(拘係之 乃從維之 王用 享于西山)이다. 즉, ‘붙잡아 묶고 동여매고 이어서 밋줄로 얹어맨다. 왕이 서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초구는 수괘의 따르는 것이 시작이고 상효는 이제

따름이 끝났다. 상효에서는 이제 따르지 못하고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해 멈추는 것이다. 상전(象傳)에서는 이를 ‘상궁야(上窮也)’라고 했다. 여기서 서산(西山)은 서쪽 산으로 주(周)나라를 세운 문왕(文王)의 고향인 서쪽 고비사막이다. 상육의 효사는 문왕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으로부터 유리옥에 갇혀 유배됐다가 (拘係之 乃從維之) 풀려나와 고비사막 쪽의 고향인 기산으로 가니 백성들이 주왕(紂王)의 폭정을 피해 문왕과 함께 기산으로 피해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민심(民心)이 문왕으로 돌아서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점해 상육을 얻으면 때는 모든 것이 묶여있는 상황으로 갇혀 움직이지 못한다. 효사에서 ‘구계’(拘係)라는 의미가 바로 감옥, 죽음, 병, 퇴직 등을 뜻한다. 은퇴할 시기에 있는 상왕, 회장 등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구오인 군주, 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조직 전체가 답답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상육을 서산 고향으로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사실상 격리시키고 만다. 사람 뒤편이를 점했다면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쉽게 분위기 등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은 사람을 쓰는 것이 거칠고 아침부터 밤늦까지 부려먹는 상당히 괴롭고 외로운 곳이다. 소망이나 사업, 전업, 취업 등은 어렵고 성과가 없으며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고 퇴직, 휴직할 시기이다. 주식점에서는 거래가 정지되고 한 번에 쓰러진다. 혼담은 걸림돌이 많아 진행이 어렵고 잉태는 늦어지나 조산, 유산 등의 우려가 있고 모자(母子) 모두가 위험하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 분실물은 돌아오지 않고 찾기 힘들다. 가출인은 경찰서 등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수가 있다. 병점에서는 태(兌)의 입을 막아 건(乾)으로 변했으니 불식, 두통, 소장, 방광, 신장 등에 이상이 있고 효사에 ‘서산에서 제사 지낸다’고 했으니 최후까지 왔다고 판단된다. 변괘가 무망(无妄)이니 자연의 성행에 맡길 수 밖에 없고 무망(無亡)으로 봐 없어져 망해 버렸다고 본다. 낱씨는 변화가 많은 가운데 점차 맑아진다.

수괘 상육을 만나면 잊었거나 미웠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고 묶여 있다 풀려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급했다가 나오는 일이 있고 승진이 아니라 퇴직할 때이고 대부분이 일들이 흥해 자연의 성행에 맡겨야 할 때다. [실점에]로 ‘모인(某인)의 신명점(身命占) 여하’를 점해 상육이 동(動)해 수지무망괘(隨之无妄)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수괘는 귀훈괘로 혼이 하늘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필사(必死)요, 상전에서 ‘상궁야(上窮也), 효사에서 ‘서산에서 제사 지낸다’고 했고 변괘가 무망(无妄)이니 상육은 어렵고 궁한 자리로서 죽어 서쪽 산에 묻혀 제사 지내게 될 것이며, 본괘 지괘의 소성괘가 금(金)이고 수괘의 끝으로 막혔으니 급년 가을까지가 명(命)이라고 하면서 자손이나 손자가 있어 그들이 서산에 묻고 장사지내 주겠다고 말했다. 건강을 자신했던 모인은 그해 가을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



점등點燈 / 우전 임 원 식

꽃 피어라
꽃 피어라
빨, 주, 노, 초, 파, 남, 보
3억 2천 오백 만 리 저쪽
태양이 8분 20초에 걸려 내려오는
햇빛 먹고 피어나는
우주의 꽃 해꽃 피어라
해꽃 피어 전기 열매 맺어
갑돌이나 을순네 등불 밝히고
세상 어둠 모두 쫓아내어
밝은 세상 만들어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동해, 서해, 남해에서
아침 해 떠올라서
벚꽃, 해꽃 피어나라
둥게 둥게
온누리태양광 발전소에
해가 뜬다
천년 만년 돈꽃 만드느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시인·문학박사
우전 임 원 식



(주)온누리태양광

본 사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4(농성동 393-52) 발전소 : 전남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61-23(남창리 390-12) TEL : (062)361-7106 FAX : (062)361-7108